



Page 26

서로를 처음 마주하는 자세

지휘자 **진솔**



FEBRUARY 2024

월간 **내일**



Vol.585

02 February 2024
Vol.585

Contents

2024.02

Vol.
585

서로를
처음
마주하는
자세



Special

고용자와 노동자의 관계에서
우리 사회가 나아가야 할 전환의 방향

고용노동부 소식지 <내일>

발행처 고용노동부
발행인 고용노동부 장관
편집위원 고용노동부 대변인
주소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11동
전화 044-202-7782
홈페이지 www.moel.go.kr
웹진 www.labor21.kr



04

토픽에세이

처음 만나는 사이, 함께 일한다는 것

08

우리사이

처음 만난 우리 사이

10

어쩌다 우린

건강한 닭, 신선한 계란 배송의 첫 콜라보

14

내일인터뷰

아름답고 멋진 '처음'을 지휘하다

Move

우리 사회의 다양한 기회를
만들어가는 가치있는 이야기

18

고용이카이프

고용노동부, 2024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22

내일, 매일

영상 촬영과 편집, 할수록 여전히 재미있습니다

26

인포그래픽으로 보는 정책

2024년에는 육아휴직도 부부가 순차적으로

28

일터애(愛)서

K-디지털 트레이닝 통한 IT기업 인재 되기

30

희망브릿지

인생 2막을 응원하는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32

환경실천연구소

쓰레기가 돈이 되는 세상



Wave

오늘의 변화 속에서 펼쳐지는
유용한 정보와 내러티브

34

트렌드 프리뷰

열쇠는 없지만 키링은 갖고 싶다

36

내일, 체크

청년 위한 자격시험 응시료 50% 지원

40

MOEL 뉴스

44

팩트폴니스

집사를 자처하는 반려시대

46

잡, MBTI

적성 따라 알아보는 나를 위한 직업 찾기

48

넬톤

기회 & 사소한 즐거움

50

WEVENT

초성퀴즈 & 독자 라운지

처음 만나는 사이,

함께 일한다는 것



‘일하다’의 사전적 의미는 무엇을 이루거나 적절한 대가를 받기 위해 특정 장소에서 일정한 시간, 몸을 움직이거나 머리를 쓰는 것을 의미합니다. 매일같이 출근해서 퇴근하는 일터에서 당신은 무슨 생각을 하며 지내나요?

‘매일 습관적으로 하는 생각이 있는가?’ 바로 미국의 철학자 윌리엄 제임스가 한 유명한 말입니다. 생각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습관이 달라질 것입니다. 습관은 성격을 변화시키고, 성격은 곧 인격을, 인격은 운명을 바꿉니다. 밝은 인생을 위해서는 자신의 생각부터 달라져야 합니다.

회사와 직장인은
늘 '처음'을 마주합니다.
매년 회사는 새로운 인재들을
접하고 채용합니다.

근로자는 경력을 쌓아
보다 나은 곳으로 회사를 옮기며
이직이라는 처음을 대면합니다.
또 한 직장에서
부서 이동을 경험하거나,
연차별로 승진이나
새로운 프로젝트를
접하기도 하죠.



신입이든 경력이든, 사업주든
근로자든, 일함에 있어
늘 '처음'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서로 각자의 상황에서
힘든 일터라는 공간.

긍정적인 마인드로
긍정적인 단어를 선택하고
표현한다면,
처음 만나는 사이에서
함께 일할 수 있는 관계가
계속 유지될 것입니다.

1
사업주편

처음 만난 우리 사이


사업주&근로자의
궁금한 노사상식

회사를 갓 창업한
사업주에게도, 회사에
갓 입사한 근로자에게도
노사관계는 어렵기만 하다.
합리적이고 정당한 고용유지와
근로활동을 위해 필요한
현장 속 생생한
질문들을 모아봤다.

글 안지연 노무사(노무사사무소
현답 대표 공인노무사)


Q 2024년부터 최저임금 산입범위가 확대된다고 하는데 식대, 차량유지비 등 비과세 항목은 최저임금 계산 시 포함되는 건가요?

2024년 최저임금은 9,860원으로 1주 40시간 근로 기준으로 월로 환산할 경우 2,060,740원(주휴포함)이 됩니다. 올해부터는 매월 1회 이상 지급되는 정기상여금, 식대 등 현금성 복리후생비 전체(100%)가 최저임금 계산 시 포함되는 점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따라서 1주 40시간 근로를 기준으로 식대 20만 원을 포함하여 월 급여가 2,060,740원 이상이라면 최저임금 위반 문제는 없습니다.



Q 아르바이트생에게도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나요?

아르바이트생도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이기 때문에 퇴직금 지급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라면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퇴직금 지급청구권은 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하며, ② 퇴직 시점을 기준으로 역산하여 4주를 평균했을 때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1달 기준 60시간)인 주가 총 52주 이상이어야 합니다. 쉽게 말해 1달 기준으로 60시간 이상 일한 달이 12개월 이상일 경우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만약 일 5시간 주 2일을 일하는 근로자는 1주 15시간 미만으로 일하는 초단시간근로자이기 때문에 1년 이상을 일하더라도 퇴직금 지급 의무가 없지만 일 6시간 주 3일을 일하는 근로자의 경우 1년 이상을 근로하면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근로 시간이 매주 변경되는 경우라면 퇴직일을 기준으로 4주를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주가 총 52주인 경우에 퇴직금 지급청구권이 발생합니다.



Q 무단결근 후 연락 두절된 직원에 대해 퇴사처리를 해도 괜찮은가요?


통상적으로 결근이란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소정근로일 즉, 출근일에 출근하지 않고 빠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취업규칙 등에 열거된 정당한 사유에 따라 사업주 승인을 받지 않은 결근은 무단결근에 해당해 징계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무단결근을 사유로 해고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23조에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판례에 따르면 연속 3일 무단결근(대법원 1991.3.27., 90다15631), 5일 이상 무단결근(대법원 2002.12.27., 2002두9063), 월간 누계 7일의 무단결근(서울고등법원 2003.7.25., 2003누5008)을 이유로 한 해고는 정당하다고 인정된 사례가 있습니다. 따라서 ① 무단결근을 징계사유로 취업규칙으로 정해두고, ② 근로자가 무단결근하는 즉시 2번 이상의 업무 복귀 통보의 내용이 담긴 내용증명을 발송하고, ③ 무단결근이 3일이상 지속되는 경우에 퇴사처리를 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아무 연락없이 무단결근한 직원 처리 문제에 대한 고민은 실무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문제로 일방적인 퇴사처리는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Q 연봉계약기간이 종료되면 근로계약도 종료되는 것인가요? 연봉계약과 근로계약의 차이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연봉제를 실시하는 회사에서는 매년 연봉협상을 하면서 연봉계약서를 새로 작성하기 때문에 많은 사업주들이 근로계약 작성 시 궁금해 하는 부분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연봉계약 기간과 근로계약기간을 구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로계약서의 근로계약 기간은 근로하기로 정한 기간을 의미하지만 연봉계약기간은 연봉이 적용되는 기간입니다. 단, 근로계약서 상 임금(즉, 연봉)은 근로계약서의 필수명시사항이기 때문에 보통 연봉계약과 근로계약을 따로 체결하기 보다는 <연봉근로계약서(명칭은 무방)>의 형태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에 연봉근로계약서에 '연봉계약기간'과 '근로계약기간'을 별도로 나누어 표시한다면 구분에 어려움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단순히 연봉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이라고만 할 경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해당 사안에서 중노위 재결례(중노위 2011부해355)는 "연봉근로계약서의 계약기간은 임금산정을 연단위로 하기 위한 연봉계약기간이라기 보다는 근로관계 존속기간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단, 해당 사안의 경우 근로자가 근로계약만 시점에서 다른 직장을 구한다는 사정 등을 참작하여 판단한 것이기 때문에 법적 분쟁 예방을 위해서는 근로계약기간과 연봉계약기간을 구분하여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만약 연봉계약서를 체결하면서 근로계약기간이 아닌 <계약기간>이라고만 명시할 경우 해당근로자가 정규직인지 계약직인지 여부가 문제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한편 연봉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시키는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될 수 있으니 주의하여야 합니다.



건강한 닭, 신선한 계란 배송의 첫 클라보

계란 정기구독 서비스 소셜벤처기업 '월간계란'

품질 좋고 맛있는 유정란을 산지 직송으로 편히 먹을 수 있는 요즘.
한 알, 한 알 아침에 손수 수거한 계란을 당일 배송한다.
월간계란도 월간기부 프로젝트도, 처음 시도하는 것이 많은 구독서비스 기업 월간계란 이야기.

글 정자은 사진 월간계란

구독경제가 하나의 문화이자 트렌드로 자리 잡았다. 특정 주제의 아이템을 구독하면 정기적으로 콘텐츠나 상품을 편하게 이용할 수 있다. 한 단계 더 나아가 신선식품으로까지 구독경제의 영역은 확장되는 분위기다. 깨지기 쉬운 계란도 문 앞 배송이 가능하다.

계란과 구독서비스의 첫 만남

기업 월간계란은 우수한 품질의 계란을 정기적으로 배송해 준다. '계란 월 정기구독 서비스'를 생각하면 된다. 월간 계란 주여달 대표가 사업의 아이템을 계란으로 정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신선한 계란 확보에 대한 자신감에서 비롯된다.

"충남 홍성에 외할아버지 때부터 운영하던 양계농장이 있습니다. 당일 암탉이 낳은 무항생제 방사 유정란을 우체국 택배를 통해 고객님의 댁으로 발송하고 있어요."

갈수록 구독서비스의 영역이 넓어지고 있지만 신선식품, 그 중에서도 깨지기 쉬운 '계란'으로

관련 사업을 기획한다는 것이 쉽지는 않았을 것이다. 주여달 대표는 3대째 가업으로 지켜 오던 양계 비즈니스를 잇기로 결정했다. 여기에 개인적인 커리어를 활용해 월간계란 서비스를 론칭할 수 있었다.

"양계장에서는 매일 건강한 닭이 달걀을 생산합니다. 신선한 계란을 안정적으로 유통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했죠. 안정적인 판로만 있으면 달걀을 바로 배송하고 재고 관리의 부담도 적을 것입니다. 자연스럽게 정기구독 고객이 모집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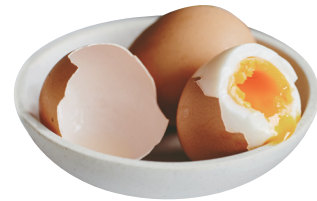
생각의 전환, 계란 안전하게 배송하기

월간계란을 설립한 시기, 그때만 해도 '정기구독'이라는 서비스 자체가 낯설었다. 정기구독도 생소하지만 이런 서비스를 활용하는 방식도 소비자 입장에서는 어렵게 느껴지는 과도기였던 시절도 있었다. 좋은 상품, 편한 서비스, 상호 신뢰가 쌓이면서 계란 월 정기구독 서비스는 자리를 잡게 됐다.





처음은 힘들기도 하고
시작은 미약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처음을 깨기 위해 노력하면
진심은 통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사육방식을 선택했다. 닭의 스트레스를 줄이고 쾌적한 환경을 유지하기까지 처음에는 힘든 부분도 있었다. 케이지 닭장 사육이 일반적이었지만 가업으로 양계가 3대째 이어지면서 많은 변화를 시도했다.

“닭의 건강을 위한 사육환경은 지속적으로 개선됐습니다. 달걀 품질도 좋아졌고요. 넓은 공간에서 암탉과 수탉이 자유롭게 지냅니다. 모래 목욕을 하거나, 날갯짓을 하며 날기도 합니다. 닭의 삶에 긍정적인 변화가 있는 만큼, 달걀 품질도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흰자와 노른자의 구분이 선명하죠. 맛도 더 고소합니다.” 그는 말한다. 사람도 자유롭게 행복하게 지내면 스트레스가 적고 건강을 지킬 수 있다. 사람도 닭도 마찬가지라고 말이다.

계란 판매량만큼 기부처도 늘어난다

마트에서 장 보는 것에 익숙한 소비자에게, 달걀의 택배 배송은 처음이라면 불안감을 느끼는 것이 어쩌면 당연하다. 월간계란은 안전 배송을 위해 꼼꼼히 포장했다. 달걀이 깨지지 않고 소비자 문 앞까지 도착하는 경험을 한 이후로는 주문량도 늘었다. 우체국 신선택배와 협업해 안전 배송을 진행했다.

“시간이 지나니, 알아서 제 때 품질 좋은 달걀이 집으로 배송되는 부분에 대해 만족도가 높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무엇이든 처음이 어렵지, 그 처음만 지나면 그 다음은 순조롭잖아요. 식재료 중 달걀만큼은 신경을 안 써도 되니, 바쁜 현대 사회에 제격인 서비스였던 것 같습니다.”

2020년 가을부터 시작된 월간계란, 초창기와 비교했을 때 어떤 점이 발전했고 개선됐을까. 초기에는 1회성으로 달걀을 구매하는 고객의 비중이 대부분이었다. 4년차가 된 지금은 정기구독으로 달걀을 편히 받는 고객의 비중이 상당히 늘었다. 택배 배송 서비스의 포장 방법도 매년 환경을 생각해 간소화시키기 위해 노력한다. 월간계란은 닭의 건강관리를 위해 평사 내 방사



“우체국 기사가 생계란 배송임을 인지하도록 택배 박스 디자인을 변경했습니다. 택배 포장 방법을 연구해 파손율도 최대한 낮추고 있습니다. 물론 배송 상황이나 지역에 따라 1~2알 정도 깨지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깨진 알을 사진 찍어 전달 주시면, 다음 배송 시 더 알을 챙겨 보내 드리거나 포인트 적립 등으로 보상하는 방법으로 보완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계란 판매와 함께 매월 달걀 기부도 진행한다. 2020년 가을에는 한곳이던 기부처가 이제는 두 자리수로 늘었다. 월간계란의 첫 기부처는 서울역 뒤편에 자리한 쪽방촌이다. 계란 판매량이 늘면서 추가 기부처를 알아봤다. 복지 사각

지대를 찾고자 고민하다, 가정폭력 피해 아동 센터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 비공개적으로 운영돼 재정이 부족하고 도움이 필요한 곳이다. 매달 마지막 주 판매 수치를 기반으로 계란 알수의 10%를 그룹홈 소속의 가정폭력 피해 아동 센터와 쪽방촌 노인분들의 식사를 책임지는 동자동 사랑방 단체에 기부한다.

“처음은 힘들기도 하고 시작은 미약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처음을 깨기 위해 노력하면 진심은 통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시골에서 정성스럽게 기른 닭들이 낳은 달걀을 우체국 택배를 통해 집 앞에서 만나 보시면 새로운 경험을 느끼실 겁니다.”



아름답고 멋진
'처음'을
지휘하다



인생에서 처음은 뭐든 어렵다. '처음'을 빛내고 가치 있는 일로 만들기 위해서는 노력과 끈기, 열정이 필요하다. 모두가 다 아는 것이지만 이를 해내는 것은 늘 수수께끼 같다. 지휘자 진솔은 클래식 음악 외에도 다양한 처음을 시도하는 예술가이자 기업 대표, 선생님이다.

글 정자은 사진 김경수



Q 지휘자이자 대표, 드라마 제작 참여까지 지난해 다양한 활동을 많이 했던 만큼, 개인적으로 의미미한 해였을 것 같습니다.

크게 세 가지가 기억이 납니다. 하나는 지난해 3년 만에 오케스트라 '말러리안'의 공연을 크게 진행했습니다. 오스트리아의 교향악 거장 구스타프 말러의 교향곡 3번을 연주하는 '말러리안 시리즈 6'의 공연을 지휘했습니다. 일반적인 오케스트라 콘서트의 3배 이상인 198명에 이르는 규모였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오랜 염원이었던 포켓몬 공연을 했습니다. 정규 계약도 맺었고요. 본사, 원작자와 정식 계약을 통해 편곡부터 모든 것들을 컨펌하면서 함께 진행하는 공연은 플래직이 유일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은 드라마 <마에스트라>로 배우 이영애님과 10여 년간 새로운 도전을 했던 것입니다.

Q 포켓몬의 게임 음악 관련해 어떤 성과를 이뤘는지 더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게임 음악 쪽으로는 정식으로 저작권을 해결한 부분이 플래직에게는 의미 있는 일이었습니다. 스스로에게도 칭찬하고 싶은 마음도 들고요. 포켓몬의 경우, 저작권 관련해 해외 IP다 보니 어려운 부분이 많았습니다. 플래직이 하나가 되어 잘 해냈다는 점에서 뿌듯합니다. 원활한 소통을 이뤄내 결국 공연까지 이어진 부분은 지금 생각해도 기쁩니다.

비상설 민간 악단인 '아르티제'를 이끌며 말러 교향곡 전곡 연주 시리즈를 도전 중인 '말러리안 프로젝트'. 게임·애니메이션 음악을 오케스트라 작품으로 편곡해 무대에 올리는 전문 공연 기획사 설립. 드라마 <마에스트라>의 주인공 티칭과 음악 관여까지.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는 지휘자 진솔을 만나 그만의 '처음'에 관한 이야기를 들었다.

Q <월간 내일> 독자들에게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게임 음악 플랫폼 플래직의 대표이사이자 클래식 음악 지휘자로 활동하는 진솔이라고 합니다. 최근에는 tvN 드라마 <마에스트라>에서 지휘자 역할을 맡은 배우 이영애 씨의 지휘 선생님이자 자문을 맡았습니다.

Q tvN 드라마 <마에스트라>는 여성 지휘자라는 드문 주제와 함께 배우 이영애 출연으로 큰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드라마 티칭을 맡게 된 계기가 궁금합니다. 먼저 배우 이영애 님이 진솔 지휘자를 원한다고 들어서 신기했습니다. 처음에는 거짓말 같기도 했고요.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극 중 나오는 여성 지휘자와 저의 상황이 비슷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난관을 헤쳐나가는 젊은 그리고 여성 지휘자. 이 부분이 롤모델을 삼고 작업하는데 적절했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Q 드라마 속 지휘자는 공연 외에도 여러 역할을 해내는 것으로 묘사됩니다.

드라마 <마에스트라>의 원작은 프랑스 드라마 <필하모니아>입니다. 드라마의 주인공인 세움이는 지휘만 하는 게 아니라 공연 티켓 판매를 위한 마케팅 전략도 기획합니다. 단원들과의 관계부터 개개인의 실력 평가까지, 많은 부분에 개입하죠. '지휘자란 무엇인가'라는 의문을 갖는 분들에게 어떻게 보면 현실과 약간의 괴리감은 있겠지만, 드라마적 허용을 고려하면 어느 정도 대답은 됐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지휘자는 운영 기획안을 내야 하거든요.

Q 여성 지휘자라는 이미지가 드라마 <마에스트라>를 통해 대중에게 어떻게 기억될길 바라시지요?

드라마 <마에스트라>의 주인공 차세음 지휘자의 여정을 보면, 극적 재미 요소를 배제했을 때 역경이나 난관을 극복하고 해결해나가는 과정은 큰 틀에서 상당히 비슷한 것 같습니다. 젊은 여성 지휘자가 극에서도 희소하단 설정처럼, 실제로도 그렇고요. 노력과 끈기로 어떤 과정을 버티고 이겨내서, 탑을 하나씩 쌓아가는 과정을 보여주는 것. 여성 지휘자라는 거에 대해 단순히 상업적 포인트로 바라보기보다 여러 과정을 다 버텨내고 포기하지 않기 위해 올라가는 노력과 열정을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드라마 <마에스트라> 차세음 지휘자를 보면, 극적 재미 요소를 배제했을 때 역경과 난관을 극복해나가는 과정은 큰 틀에서 상당히 비슷한 것 같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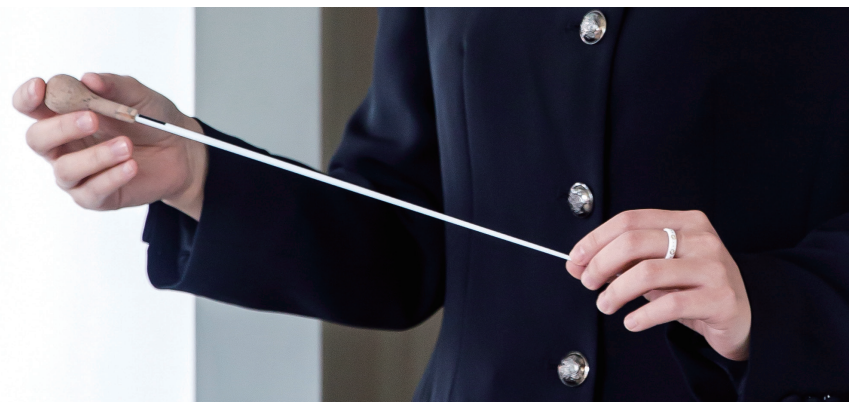


Q 지휘자이자 게임음악 플랫폼 회사 대표이사 되기까지의 원동력, 자신에 대한 믿음은 어떻게 구축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열심히 준비해서 원하는 대학교에 들어갔지만, 처음부터 확실한 계획이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방향하고 고민하는 시기도 있었습니다. 어느 날 수업을 성실히 들어보아겠다는 생각을 했죠. 수업과 공부가 너무 재미있더라고요. 안경을 쓰고 책가방을 멘 다른 자신의 모습을 봤습니다. 외적인 것보다 내적인 성장이 더 가치 있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사회와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과 인간관계를 대하는 모습까지 말이죠. 작은 도전, 긍정적인 변화를 계기로 자신에 대한 믿음으로 노력한다면 어느 정도는 해낼 수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Q 진솔 지휘자님이 생각하시는 처음은 어떤 의미인지, 또 월간 내일 독자분들한테 전하고 싶은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처음은 무엇이든 다 힘든 것 같습니다. 사업도 공연 프로젝트도 처음 시작할 때는 호응하는 이가 적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다져지는 것 같습니다. 물론 힘들고 지치는 것 역시 자연스러운 과정이고요. 자신에 대한 믿음만 있다면, 원하는 길에 대한 비전이나 목표는 나아가면서 정립하는 것도 의미 있습니다. 원하는 대로 계획이 잘 수행되지 않는다면 변경하고 보완하면 되니까요. 지휘자 진솔의 성장을 봐주시길 바랍니다. <월간 내일> 독자분들도 함께 하루하루 저와 같이 성장했으면 좋겠습니다.



달라지는 고용노동부 소관 정책사항 돌아보기 고용노동부, 2024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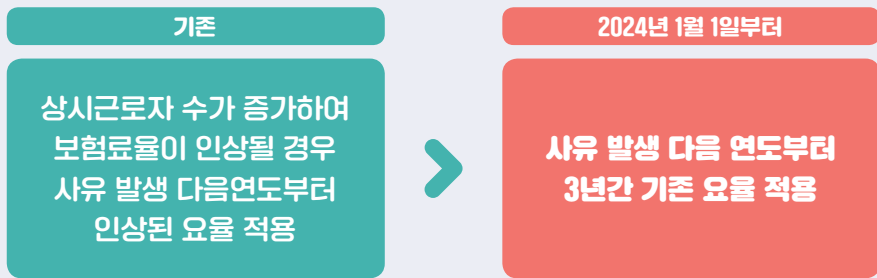
상시근로자 수 증가에 따른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보험료 부담 완화

2024년 1월 1일부터 기업이 고용을 증가시키는 등 상시근로자 수가 증가하여 보험료율 인상 사유가 발생하더라도 사유 발생 다음연도부터 3년간은 기존의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보험료율을 적용받게 됩니다.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보험료율(사업주 전액 부담)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보험료율



문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



워라밸일자리 장려금 지원

가족돌봄, 건강, 학업, 퇴직준비 등 근로자의 필요와 신청에 따라 일정기간 동안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해 근무하도록 허용하는 사업주에게 워라밸일자리 장려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지원대상** 우선지원대상기업(중소기업) 및 종건기업
- 지원요건**
 - 1 근로시간 단축 제도 도입
 - 2 단축 전 6개월 이상 주 35시간 이상으로 근무한 근로자 대상
 - 3 주당 소정근로시간 15~30시간으로 단축 [최소 1월<임신 2주> 이상 연속 활용]
 - 4 전자·기계적 방법에 의한 근태관리
 - 5 연장근로 제한
- 지원내용** 단축 근로자 1인당 월 최대 50만원 지원 [장려금: 월 30만원/ 임금감소액 보전금: 월 20만원]
- 지원대상** 직전년도 말일기준 피보험자수의 30%(최대 30명), 1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3명
- 지원기간** 근로시간 단축 개시일로부터 1년 범위 내에서 지원(최대 1년)

문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 전국 고용센터 기업지원부서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 전면 확대 시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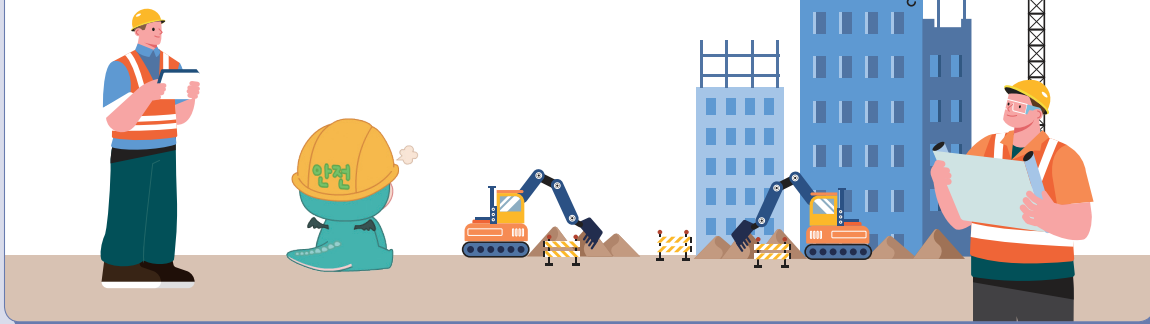
2024년 1월 1일부터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가 모든 퇴직공제 가입대상 건설공사(공공 1억 원, 민간 50억 원 이상)로 전면 확대 시행됩니다. 사업주는 건설근로자가 전자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전자카드 단말기를 설치·운영하고, 근로자는 금융기관에서 전자카드를 발급받아 출·퇴근 시 사용해야 합니다.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란?

퇴직공제금 적립을 위해 건설근로자가 건설현장에 출입할 때 카드단말기에 전자카드를 태그하여 본인의 근로내역을 직접 기록하는 제도로써, 체계적인 인력관리와 노무비 허위 청구 및 누락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대상 공사예정금액 규모에 따른 적용일 이후 입찰공고
(입찰공고를 하지 않는 경우 도급계약 체결일)하는 건설공사
시행일 2024년 1월 1일
문의 건설근로자공제회 전자카드사업부 ☎ 02-519-2132



안전동행 지원사업

2021년부터 3년간 한시적으로 추진한 안전투자 혁신사업을 2024년부터 위험공정개선 중심의 안전동행 지원사업으로 개편하여 새롭게 추진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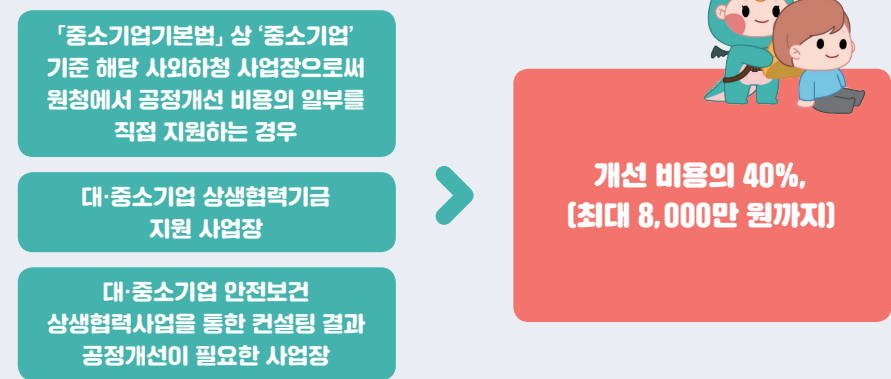
대·중소 안전보건 수준 격차 완화



* 주조, 소성가공, 표면처리

** 기계기구·금속·비금속광물제품제조업, 화학 및 고무제품제조업, 수제품 및 기타제품제조업, 식품제조업, 목재 및 종이제품 제조업, 금속제련업

원·하청 안전보건 상생지원



시행일 2024년 1월
문의 안전보건공단 ☎1644-4555

영상 촬영과 편집, 할수록 여전히 재미있습니다

자동차DIY를 즐기는
크리에이터 회사원

35만 명 정도의 구독자 수 보유,
자동차를 조립하고 튜닝하는 특이한 콘텐츠를
창작하는 크리에이터 회사원.
그가 힘들게 고민할수록 난관을 헤쳐
나가고자 노력할수록 구독자들은 그를 응원한다.
글 정자은 사진 오충근

Q 크리에이터 회사원님의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합니다.

유튜브 '회사원'이라는 채널을 운영하는 크리에이터 박성진이라고 합니다. 자동차 DIY와 셀프 튜닝, 자동차와 관련된 콘텐츠를 기획해 독자 분들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회사원'을 처음 시작할 때는 회사를 다니면서 크리에이터를 운영했지요. 퇴사 이후에는 '회사원'이라는 서브 채널도 같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Q 처음에는 도전하는 마음으로 접근했다고 들었는데, 유튜브에 영상을 올리게 된 계기가 궁금합니다.

유튜브 채널에 첫 콘텐츠를 올리던 때가 2018년 12월입니다. 그 시기는 크리에이터라는 직업의 초창기였던 것 같습니다. '크리에이터 나도 한 번 해볼까', '콘텐츠를 올려 볼까'. 이런 생각들을 하며 시작하던 시절인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영상 콘텐츠를 시청자, 구독자의 입장에서 즐겨 봤습니다. 어느 날 멋지게 만든 영상들을 보면서 나도 한번 만들어 보고 싶다. 시작은 그런 마음으로 도전했던 것 같습니다.

Q 크리에이터 초창기, 어려웠던 점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영상을 촬영하고 편집하는 모든 작업이 처음이라 어려웠습니다. 어렵고 힘든 작업인데, 희한하게 하면 할수록 영상을 만드는 것이 재미있더군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크리에이터를 하고 있습니다. 편집에 흥미가 있다는 것은 작업을 하면서 깨달았습니다.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말처럼. 처음에는 아무것도 모르고 시작했습니다. 작업을 하면서 모르는 것은 찾아보고 배우면서 독학을 했습니다. 자신도 몰랐던 숨겨진 적성을 찾게 된 것이죠.

Q 한동안은 직장 생활과 병행하며 크리에이터 활동을 하셨습니다.

퇴근 후나 주말에 콘텐츠 작업을 했습니다. 과거에는 직장인이었죠. 초반에는 크리에이터만 한

다는 생각을 하지 못했습니다. 하나의 취미 생활로 즐기면서 했던 것 같습니다. 직장인의 휴식 시간에 고되지만 저에게는 재미있는 취미가 바로 크리에이터였습니다. 피곤은 한데 하면할수록 묘한 매력에 빠지는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창작물을 만드는 행위가 신선했습니다. 편집을 하면 할수록 재미와 행복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Q 크리에이터로 본격적인 전향, 돌이켜보면 어떤 생각이 드는지요.

지금 돌이켜보면 회사를 다니면서 크리에이터를 어떻게 했나, 신기한 생각이 제일 먼저 듭니다. 퇴근 이후의 시간과 주말을 오롯이 반납했거든요. 직장 생활을 했기 때문에 지금의 크리에이터도 집중해서 해낼 수 있던 생각이 듭니다. 세상에 모든 경험은 도움이 된다고 하죠. 직장인 생활 11년이란 세월이 있기에, 혼자서 작업하고 기획하는 크리에이터라는 직업에 많은 도움이 된다고 봅니다. 1인 크리에이터로 처음부터 프리랜서로 활동했다면, 금방 무너졌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삶의 노하우가 쌓인 만큼 극복할 수 있는 에너지가 생긴 거라 생각합니다.

Q 인생에서 직업을 바꾼다는 건 굉장한 용기가 필요합니다. 당시 회사원님에게 과감한 선택을 할 수 있게 한 계기가 있었을 것 같습니다.

회사 생활을 계속 할지 말지 결정을 해야 하는 시기였습니다. 이직을 하고 크리에이터를 하는 방법도 있고요. 너무 정신없이 앞만 보고 달렸던 자신이 보였습니다. 스스로를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졌는데 체력적으로 상당히 소모된 것을 깨달았습니다. 두 가지 직업을 병행하다 보니 쉬는 날 없이 올인해야 했고요. 우선 건강을 먼저 챙기고 잠시 쉬는 시간을 가져야겠다고 결정했습니다.

Q 크리에이터마다 매력이 다른데, 본인이 생각하는 회사원의 매력은 무엇이라 생각하는지 궁금합니다.

늘 궁금했습니다. 구독자 분들은 저의 어떤 점을 좋아하시는지. 자동차 DIY가 어렵고 시간도

오래 걸리는 작업입니다. 실제로 문제도 많이 생겨서 '문제가 생겼어'라는 멘트를 자주 하는데요. 며칠씩 걸려 고민하면서 작업하는 과정을 재미있게 봐주시는 것 같습니다. 테스트를 해서 작동이 안 되기도 하고, 다른 것을 시도해보기도 합니다. 혼자 극복해 나가고, 조립이나 튜닝에 힘들게 성공하는 모습들을 좋아하시는 것 같습니다.

Q 개인적으로 크리에이터는 어떤 성향의 사람들에게 잘 맞다고 생각하시지요.

어떤 주제와 관련해 창작하고 누군가에게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을 좋아하는 분이라면 크리에이터가 잘 맞을 것 같습니다. 주변에서도 크리에이터라는 직업에 관해 많이 물어보곤 하는데요. 그때마다 크리에이터는 마라톤과 같다고 말합니다. 그냥 영상을 보면 갑자기 콘텐츠가 잘 돼서 구독자 수가 늘어난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인내와 끈기가 필요한 작업입니다. 본인의 아이덴티티를 구축하고 장기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Q 크리에이터를 꿈꾸는 청년들에게 선배로서 전하고픈 메시지 부탁드립니다.

막연하게 1인 크리에이터가 되고 싶단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이전에 정확히 자신이 뭐가 되고 싶은지를 진지하게 생각해 보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영상을 창작하고 싶은 건지, 기획을 하고 싶은 건지, 아니면 단순히 유명해지고 싶은 건지. 그 기준을 명확히 찾을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에 자신이 무언가를 창작하는 활동에 재미를 느낀다면 1인 크리에이터라는 방향이 맞습니다. 스스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먼저 파악하는 시간을 갖길 바랍니다.

막연하게 1인 크리에이터가 되고 싶단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정확히 자신이 뭐가 되고 싶은지를 진지하게 생각해 보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2024년에는 육아휴직도 부부가 순차적으로

6+6 육아휴직제도 살펴보기

일과 육아를 병행하는 것은 모든 부모의 고민일 것이다. 올해부터는 부모 모두가 자녀 생후 18개월 이내 동시에 또는 번갈아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 첫 6개월 육아휴직 급여를 통상임금 80%에서 100%로 상향하여 지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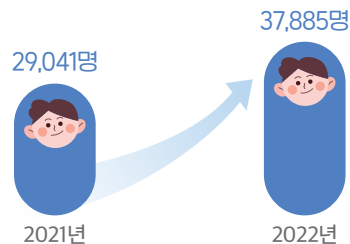
정리 편집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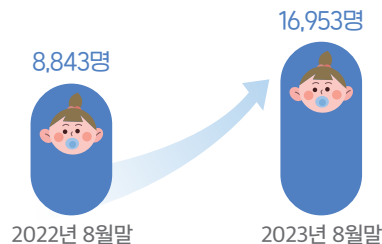
3+3 육아휴직제도, 효과는 어땠을까?

'3+3 부모육아휴직제'는 부모 각각의 첫 3개월 육아휴직 급여의 소득대체율을 높여 주는 제도다. 아빠 육아휴직 참여가 2022년도에 비해 30% 이상 증가하는 데에 기여했다. 2023년도에는 전년 대비 사용자 수가 91.7%나 증가했다. 정부는 최대 6개월까지 부모의 육아휴직 급여 소득대체율을 확대/지원하고자 올해부터 '6+6 부모육아휴직제'를 도입한다. 향후 아빠 육아휴직 참여가 더욱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남성 육아휴직 급여 수급자 수 +30.5%



3+3 부모육아휴직제 사용자 수 +91.7%



6+6 육아휴직제도, 이렇게 변경돼요!

육아휴직 기간은 근로자가 육아여건, 경력개발, 소득 감소 등을 고려해 필요한 만큼의 기간을 스스로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다. 이러한 다양한 요인으로 육아휴직이 어려운 경우 일하면서 자녀를 돌볼 수 있도록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확대할 예정이다.

자녀 연령 확장



생후 12개월

↓

생후 18개월

지원 기간 확대



첫 3개월

↓

첫 6개월

지원 총액 상향



부모 합산
최대 3,900만원 지원

부모 각각 6개월 육아휴직 시
최대 1,950만 원 지원

월별 지원액 상향

통상임금 100%

기간	기존 3+3 부모육아휴직제	확대 6+6 부모육아휴직제
1개월	최대 200만 원	최대 200만 원
2개월	최대 250만 원	최대 250만 원
3개월	최대 300만 원	최대 300만 원
4개월	-	최대 350만 원
5개월	-	최대 400만 원
6개월	-	최대 450만 원



K-디지털 트레이닝 통한

IT기업 인재 되기



빅데이터 분석, 인공지능, VR/AR 콘텐츠 개발 등 IT만큼 다양한 신기술이 적용되고 개발되는 분야도 없다. K-디지털 트레이닝을 잘 활용하면 청년 누구나 신기술 역량을 키울 수 있다. 또 미래를 이끌 첨단 분야의 유망 직군에서도 꿈을 펼칠 수 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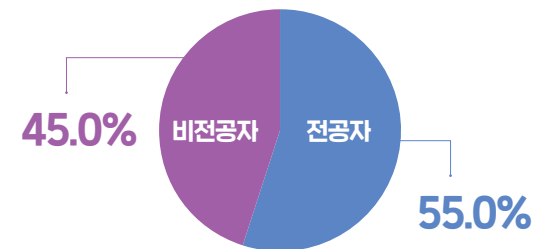
글 편집실 참고 고용노동부 외 다수

📄 디지털·첨단분야로 취업하고 싶다면

K-디지털 트레이닝(KDT)은 디지털·첨단분야 신기술을 배우고 실전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훈련과정을 제공하는 직업훈련사업이다. 성별·연령·전공 등과 무관하게 신기술 분야 역량을 높이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훈련을 받을 수 있다.

먼저 디지털·신기술 분야 현장에서 기업들이 원하는 핵심 실무인재, 새로운 기술과 훈련방법을 가진 기업과 대학, 혁신 훈련기관이 함께 양성한다. K-디지털 트레이닝 훈련과정은 프로젝트 과제 수행, 해커톤, 기업과제 해결 등을 통해 지식 전달이 아닌 경험 획득과 문제 해결에 초점을 두고 있다. 또 K-디지털 트레이닝은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자를 대상으로 운영되며, 관련 훈련을 최초로 신청하시는 경우 훈련비가 전액 지원된다.

KDT 비전공자/전공자 비율 *2023년 12월 기준



K-디지털 트레이닝 분야 *디지털 신기술 핵심 실무인재 양성훈련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스마트제조	인공지능
클라우드컴퓨팅	정보보안	실감형콘텐츠	핀테크

🌟 재직자 디지털융합훈련 제도란?

재직자 디지털융합 훈련시범사업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경제·사회구조 변화에 대응하고, 빅데이터/인공지능 같은 디지털 뉴딜의 핵심 기술에 대한 근로자 역량 강화를 위해 추진하게 됐다. 이번 사업은 사·공간의 제약 없이 훈련이 가능한 원격훈련의 강점을 살려, 재직자의 디지털 융합 기술역량을 개발하기 위함이다.

훈련과정은 입문과정의 경우, 쏘 근로자 대상으로 디지털신기술 기초이론 등의 내용을 훈련한다. 4시간 이상 구성이며 인터넷원격으로 훈련 받는다. 직무능력향상과정은 디지털신기술 기초이론을 원하는 대상자를 위해 마련된 과정이다. 디지털신기술 직무능력 향상과 현업적용을 주요 내용으로 하며 8시간 이상 인터넷으로 원격훈련 받을 수 있다.

2024년 달라지는 청년일자리 10대 사업

- 1 '대학 재학생 맞춤형 고용서비스' 올해 50개 대학, 12만 명 확대
- 2 '고교생 맞춤형 고용서비스' 신설
- 3 '미래내일 일경험 사업' 2.6만명에서 4.8만명으로 확대
- 4 'K-Move 스쿨' 사업 지원 2,100명에서 3,100명으로 확대
- 5 청년 수요가 높은 'K-디지털 트레이닝'은 4만 4천명으로 확대
- 6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시행하는 국가기술자격 (493개 종목) 시험 응시료의 50% 할인
- 7 청년도전지원사업이 8천명에서 9천명으로 확대
- 8 '청년성장 프로젝트' 10여 개 광역자치단체에서 새롭게 시행
- 9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 위해 '일자리 채움 청년지원금' 새롭게 시행
- 10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확대 시행

인생 2막을 응원하는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통계청에 따르면 2022년 65세 이상 고용률은 36.2%에 달한다. 정년 이후에도 계속해서 근무하길 희망하는 근로자는 더욱 증가하고 있다. 나이만을 이유로 고숙련 근로자를 떠나보내는 건 기업도 큰 손실이다.

글 편집실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고령화시대, 일할 의욕과 능력이 있는 60세 이상 근로자는 꾸준히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근로자와 사용자의 요구에 부응하고자, 정년 이후에도 계속 고용하는 사업주를 지원하는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사업을 시행했다. 그 결과 노사합의를 통해 자율적으로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으로 계속고용제도를 도입해 지원받은 기업은 2023년 기준 2,649개소, 7,888명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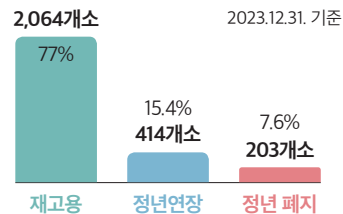
근로자들은 정년 후에도 현재 일자리에서 계속 근무할 수 있다. 국민연금 수령까지의 소득 공백을 해소할 수 있고, 기업은 업무 경험이 풍부하고 숙련도가 높은 근로자를 계속 고용해 생산성 향상, 인력 채용 비용 절감 효과를 볼 수 있다. 2022년 고용영향평가 발표 결과에 따르면,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수혜 사업장이 비수혜 사업장보다 60~64세 근로자에 대한 고용효과가 5.86%p 높은 것으로 나타나 제도의 실용성이 입증된 것을 알 수 있다.

실제사례 살펴보기

의료재단 OO병원, 정년연장을 통한 의료서비스 제고

2017년 설립한 의료재단 OO병원의 근로자수는 65명입니다. 근로자의 정년 도래로 인해 인력 공백이 발생하자, 신규 채용으로 이를 해소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업무 부적응 등으로 이직하는 근로자가 많아 업무 효율성과 안정성을 확보하기 어려웠습니다. 경력과 전문성을 갖춘 정년 도달 간호사, 방사선사 8명을 계속 고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60세→62세 정년연장). 이를 통해 근로자의 고용안정과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어 이용자의 만족도가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계속고용제도 유형별 도입 현황



Q&A

질문있어요!



Q. 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계속고용제도의 기준이 궁금해요.

지원대상이 되는 계속고용제도는 정년 연장·폐지, 재고용 유형이 있으며, 노사가 협의해 기업 사정에 맞게 자율적으로 하나의 제도를 도입하면 됩니다.

- ① 정년 연장은 최소 1년 이상 연장하여야 지원이 가능 (2년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2년 연장)
- ② 정년 폐지는 별도 기준 없음
- ③ 재고용은 정년 도달일 다음날부터 6개월 이내에 재고용,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 "정년에 도달하는 근로자가 희망하는 경우 1년 이상 재고용한다"는 방식으로 일률적으로 재고용하여야 함

Q. 취업규칙에 계속고용제도를 명시하지 않았지만, 정년 후 계속고용이 관행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 지원이 가능한가요?

노사합의를 통해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명시적으로 계속고용제도를 도입합니다. 제도 시행 전부터 근무하던 근로자가 정년에 도달해 동 제도를 적용받아 고용이 연장된 근로자가 있는 경우 지원합니다. 따라서 계속고용제도 시행 전에 이미 정년이 도과하여 근무하는 경우, 고령근로자가 수혜를 보고 있다 볼 수 없어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만 60세 이상 고령자의 고용이 증가되었다면 '고령자 고용지원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고령자 고용지원금 : 만 60세 이상 근로자가 이전 3년보다 증가한 경우 증가 근로자 1명당 분기 30만 원을 최대 2년까지 지원

Q.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사업주 요건이 궁금해요.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우선지원대상기업(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면 됩니다. 60세 이상 피보험자가 전체 피보험자의 30%를 초과한 사업장의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그러나 만 60세 이상 고령자의 고용이 증가했다면 '고령자 고용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계속고용장려금 지원 대상이 되는 근로자에 대한 소정근로시간 요건이 있나요?

소정근로시간과 상관없이 정년이 적용되고,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대상이라면 지원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년 이후에도 고용안정을 위하여 사업주가 신고한 월평균 보수총액이 115만 원 이상인 근로자를 지원합니다.

Q. 계속고용장려금은 언제까지 신청이 가능한가요?

분기 단위로 신청, 신청 분기 마지막 날의 다음 날로부터 1년 이내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예) 계속고용일이 2023년 2월 1일인 경우, 1분기 말일 (2023년 3월 31일)의 다음날인 2023년 4월 1일부터 2024년 3월 31일까지 신청 가능

잘 버리는 것도 돈이 되는 세상이 왔다. 다 쓰고 버려지는 캔과 페트병을 넣으면 개당 10원을 보상한다. '네프론'을 통해 회수된 페트병은 약 2억 8,200만 개, 캔은 1억 개에 달한다. 친환경이 메가트렌드로 자리한 요즘, 쓰레기를 모아 돈을 버는 '스테크'가 주목받고 있다.

글 신동현 사진제공 슈퍼빈(WWW.SUPERBIN.CO.KR)

쓰레기가

돈이 되는 세상

RECYCLING

UPCYCLING

고물가 시대, 주목받는 스테크

월급 빼고 다 오르는 고물가 시대다. 가벼워진 지갑만큼 무거워진 가계의 부담을 조금이라도 줄여야 한다. 그래서일까, 당장의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거나 생활 속 지혜로 부수입을 창출하는 짠테크가 주목받고 있다. 그중에서도 '버려지는 쓰레기로 재테크를 하는 '스테크'가 화제다. '스테크'는 쓰레기를 모아 돈을 벌어 고물가를 지혜롭게 버티는 것을 말한다. 여기에 시대적 흐름인 친환경이 더해졌다. 장바구니를 챙겨 장을 본다. 일회용 컵 대신 텀블러에 음료를 주문한다. 쓰레기를 만들지 않는 소비활동으로 환경보호까지 실천하는 것이다. 물론 버려지는 쓰레기의 양은 만만치 않다. 환경부에 따르면 지난 2021년 한 해 동안 발생한 폐기물의 양은 1조 9,738만 톤에 달한다. 재활용 시장도 커지는 분위기다. 글로벌 시장조사업체 스태티스타에 따르면 폐기물 재활용 시장은 2020년 551억 달러에서 2030년 880억 달러까지 늘어날 전망이다.

새로운 가치와 수익을 만드는 쓰레기

쓰레기를 활용해 새로운 가치와 수익을 창출하는 스타트업도 등장했다. 쓰레기를 다시 소재로 활용할 수 있도록 새로운 순환경제의 구축을 시도하고 있는 것. ESG 키워드는 물론, B2C 모델로 소비자를 직접 공략하거나 B2B 사업을 통해 대형 고객사를 확보하기도 한다. 이들 스타트업은 AI를 활용한 센서로 페트병, 캔, 폐종이 등 재활용품의 무게와 적재량을 감지하는 로봇을 개발했다. 어플을 통해 주변의 가장 가까운 자원회수로봇과 사용 가능 여부를 실시간으로 알 수 있는 점도 특징이다. 외형은 자판기와 비슷하지만, 지정된 위치에 올려둔 재활용품을 감지해 분류하고 보상으로 포인트를 지급받을 수 있다. 이렇게 지급받은 포인트는 자체 쇼핑몰 등에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다. 이런 자원회수로봇은 초기에는 지자체, 공공기관 등을 중심으로 도입됐지만 지금은 민간 기업에서도 도입하고 있다.

스타트업이 주목하는 쓰레기 사업

슈퍼빈이 개발한 일회용품 회수기기 '네프론'은 전국에 약 820여 대가 설치돼 있다. 2023년 12월 기준 네프론을 통해 회수된 페트병은 약 2억 8,200만 개, 캔은 1억 700개에 달한다. 누적 환전액도 26억 원을 넘어섰다. 그밖에도 오이스터에이블이 개발한 분리수거 앱 '오늘의 분리수거'는 누적 가입자 8만 명, 월 활성 이용자도 1만 5,000명 수준으로 성장했다. 이들이 개발한 분리배출함은 전국에 480여 대가 설치돼 있다. 오이스터에이블에 따르면 자원 회수율이 약 80%에 달한다고 한다. 기업과 기관을 대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스타트업의 성장도 만만치 않다. 매년 발생하는 폐기물 중 사업장, 건설폐기물이 차지하는 비중이 80%나 차지하기 때문이다. 특히 이 시장은 탄소중립 트렌드와 맞물리며 성장세가 기대되는 분야기도 하다. 폐기물을 배출하고 자원 순환을 돕는 솔루션 '에코야'의 성장도 주목할 만하다. 해당 솔루션은 종이, 플라스틱, 비철금속 등을 수거, 선별한 뒤 압축을 거쳐 재활용할 수 있는 자원으로 만들어낸다. 기업 고객 입장에서 폐자원을 합리적인 가격에 되팔고, 재활용된 자원으로 친환경 마케팅을 전개할 수 있다. 에코야는 이렇게 매년 10만 톤이 넘는 폐자원을 취급하고, 8만 톤 이상의 온실가스를 감축했다.



자원의 선순환, 호의적인 소비자

스테크 스타트업들은 단순히 쓰레기의 수거나 처리, 자원을 재활용하는 것에 그치지 않는다. 투자자들이 이들에게 관심을 갖는 이유는, 저마다 쓰레기를 새로운 소재 등으로 변화시키는 '업사이클(Upcycle)' 기술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버려진 플라스틱에서 패션의 원단을 새롭게 추출하거나, 맥주 찌꺼기로 대체 밀가루를 생산하는 등 식품 부산물의 재활용에 이르기까지 이런 자원 순환의 분야는 매우 넓다. '가치 소비'가 뉴노멀이 된 지금, 이런 업사이클 기술을 보유한 스타트업들은 계속해서 각광받을 것이다. 자원의 선순환에 호의적인 소비자들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이들은 보다 친환경적이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에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할 의향이 커지고 있다. 똑똑한 소비를 중시하는 경향이 확대되는 가운데 스테크 기업과 같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업사이클의 물결은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비밀번호나 지문으로 문을 여는 지금, 키링 열풍이 불고 있다. 길에서 동물 모양이나 캐릭터 키링을 부착한 가방이나 휴대폰을 보는 것이 어렵지 않다. 하루에도 수십 건씩 SNS에 올라오는 MZ세대의 키링 착용 인증 사진.

열쇠 없는 그들이 키링에 빠진 이유는 무엇일까.

글 정자은 참고 바이브컴퍼니 생활변화관측소 외 다수

열쇠는 없지만 키링은 갖고 싶다

키링의 귀환



다시 돌아온 키링 유행

한때 키링에는 열쇠가 있었지만, 지금 키링은 스마트폰이나 가방에 달려있다. 돌이켜보면 약 20년 전에도, 지금처럼 젊은 세대 사이에서 각자의 개성을 살린 핸드폰 액세서리가 인기를 끌었다. 날카로운상상력연구소장 김용섭 트렌드 분석가에 따르면 키링은 이미 열쇠가 아닌 스마트폰이나 가방과 짝을 이루고 있다. 과거 언젠가 키링의 정체성은 진작에 무너진 것이다. 열쇠에 달지 않으면서도 키링이라 부르는 건, 열쇠라는 아날로그적 감성이 Z세대의 레트로(때론 뉴트로) 욕망에 부합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이다.

MZ세대, 특히 Z세대에게 키링은 레트로 문화처럼 기존에 접하지 못한 새로운 트렌드로 인식되고 있다.

캐릭터 키링과 오픈런

키링 열풍을 반영하듯, 2022년 하반기 국내 편의점 3사에서는 캐릭터 키링을 출시했다. '포켓몬키링젤리'와 '짱구키링젤리', '산리오서프라이즈마이키링'은 오픈런까지 일으켰다. 2023년 1월 기준 누적 판매량 1,000만 개를 기록할 만큼, 좋은 반응을 얻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키링에 대한 인기는 여전하다. 에이블리나 지그재그 등 인기 쇼핑몰에서도 키링 관련 기획전이나 베스트 상품에 키링 상품이 올라와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바이브컴퍼니 생활변화관측소에 의하면 2022년 이후 본격적으로 증가한 키링에 대한 관심은 2020년에 비해 2023년 현재 4.5배 이상 증가했다. 키링 연관 브랜드 순위 변화를 살펴보면 2021년은 명품 브랜드 키링에 대한 언급량이 주를 이뤘다. 2022년은 산리오나 포켓몬, 헬로키티와 같은 캐릭터 키링 브랜드가 상위권에 올랐다. 키링에 대한 인기가 절정을 달리는 2023년에는 모남희나 젤리켓, 코지모지, 마뽕킴 등의 키링 전문 브랜드가 대거 등장한 것을 알 수 있다.

새 가방 대신 키링으로 꾸미는 세대

MZ세대, 특히 Z세대에게 키링은 레트로 문화처럼 기존에 접하지 못한 새로운 트렌드로 인식되고 있다. 패션업계는 불황형 소비와 레트로 트렌드 등이 맞물린 결과라 보고 있다. 새 가방을 사는 것 대신 캐릭터 인형 키링을 가방에 매치하면 기존과 다른 느낌을 연출할 수 있다. 고가의 가방대신 적은 비용으로 새 가방을 드는 것 같은 효과를 낼 수 있는 것이다.

뉴진스나 블랙핑크 등 셀럽들이 키링으로 스타일링한 후 SNS에 인증샷을 올리는 것 역시 큰 몫을 한다. 모남희, 젤리켓, 마지셔우드, 마뽕킴 등 다양한 브랜드에서 출시되는 인형 키링을 가방에 단 후, 인증하는 것 역시 쉽게 볼 수 있는 요즘 SNS 문화다. 한 브랜드의 인형 키링의 경우, 품절대란이 일어나면서 2~3배까지 주며 리셀하는 광경도 일어나고 있다. 누군가에게는 추억의 액세서리이자 자신을 표현하는 가성비 패션 소품. 한동안 여러 브랜드에서 키링 제품을 구경하는 재미가 꾸준할 것으로 보인다.

청년 위한 자격시험 응시료 50% 지원

신기술 직무역량 국가기술자격증 반영

청년의 구직활동과 신기술 직무역량을 산업현장에 반영하기 위해 「제5차 국가기술자격 제도발전 기본계획」이 발표됐다. 청년 자격시험 응시료 50% 감면, CBT 기반 시험 도입 등 국가기술자격 제도 개편 등 다양한 지원 방안에 대해 살펴보자.

글 편집실 참고 고용노동부

2024년부터 청년들의 국가기술자격 시험 응시료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34세 이하 청년이 국가기술자격 시험에 응시할 경우 응시료의 50%를 지원받을 수 있다.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시행하는 자격 종목에 대해 1인당 연 3회 한도로 지원한다.

국가기술자격 제도 개선

국가기술자격 취득자가 습득한 신기술 직무역량을 국가기술자격증에 반영하는 ‘플러스자격’이 도입된다. 시험방식도 컴퓨터 기반 시험(CBT, Comput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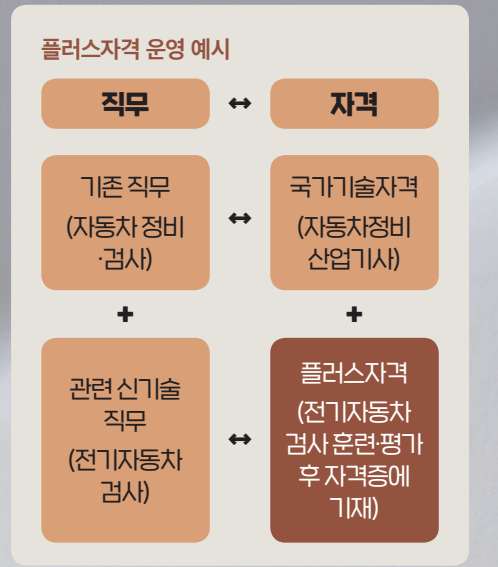
based Test) 방식으로 개편돼 편리하게 시험을 응시할 수 있다. 이는 지난 2024년 1월 국무회의에서 발표한 「제5차 국가기술자격 제도발전 기본계획」에 따른 개편이다. 플러스자격 도입, CBT 시험 방식 개편 외에도 다양한 자격제도 개선 방안이 담겨 있다. 기본계획의 주요 내용으로는 ① 직무 범위가 넓은 자격의 직무 단위별로 세분화해 부분 취득할 수 있도록 해 응시자의 자격 취득 부담 경감, ② 청년 응시자의 자격시험 응시료 50%를 지원해 비용 부담을 줄여 자격 취득을 통한 취업 및 직무능력 향상 지원, ③ 중장년 선호 분야는 체계적인 실무 훈련이 가능한 과정평가형 자격 종목을 확대·신설해 전직을 집중 지원, ④ 외국인력 확대를 감안해 다국어 시험 서비스를 제공하고 기업이 기술 숙련도가 높은 외국인 근로자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함 등이 있다.

청년 국가기술자격시험 응시료 지원사업

- **지원대상** 만 34세 이하 청년 누구나(1989년 1월 2일 이후 출생)
- **지원내용**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시행하는 국가기술자격시험 응시료 50% 지원
- **신청방법** 원서접수 시 응시료를 지원받을 시험 선택 후 결제
- **지원한도** 1인당 연간 3회 한도
- **신청기간** 2024년 1월 2일 ~ 지원 예산 소진 시까지

플러스자격 제도 도입

디지털, 로봇·드론 등 신기술·신산업 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인력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에 국가기술자격 취득자가 신기술·신산업 분야 훈련과정을 이수하고 일정한 평가 기준을 충족하면 자격증에 반영하는 ‘플러스자격’ 제도가 도입됐다. 기존 직무에 새로운 기술 융합이 활발히 이루어지는 분야에 우선 도입될 예정이다. 가령 자동차정비 산업기사 취득자가 전기자동차 검사 직무훈련을 이수하면, ‘전기자동차 검사 직무능력(플러스자격)’을 자격증에 기재하는 식이다. 5대 첨단산업 분야 인력 양성 지원을 위해 소관부처, ISC 등 해당 분야 관계 기관과 협업하여 플러스자격 수요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제도 확대를 이어나갈 계획이다.



자격 신설 절차 개선

산업 내 통용 자격 중 국가 운영 필요성이 인정되는 국가자격 신설도 개선된다. 먼저 산업별 직무·역량을 체계화할 수 있는 산업별역량체계(SQF)를 우선 구축한다. SQF란 산업 분야별로 현장에서 통용되는 표준 직무를 도출해 표준화한 것이다. 직무 수행에 필요한 능력을 구조화해 교육훈련·학위·자격·경력 연계·활용할 수 있도록 한 체계다. 이러한 구축 결과를 바탕으로 산업 내 표준화된 직무역량을 인정할 자격이 없는 경우, 자격 신설을 우선 검토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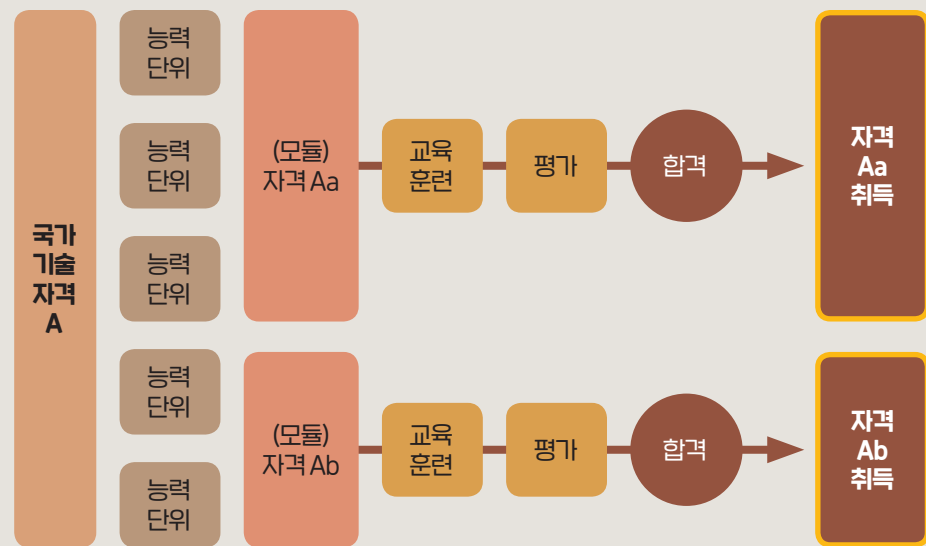
자격 신설절차 간소화도 함께 추진 중이다. 현재 시행규칙에 규정되어 있는 기술자격을 고시에 규정해 산업현장 직무역량 변화를 적시에 반영할 예정이다. 또한, 민간·산업체가 주도하여 자격 및 훈련과정을 신설해 NCS를 개발한 경우 국가자격에 준하는 공신력을 부여한다. 공신력 있는 민간 통용 자격 중 국가 자격 전환이 필요한 경우 국가기술자격으로 인정하는 제도 도입도 추진 중이다. 신산업 분야의 육성을 위한 국가적 인력양성 필요성 증가 등 현장의 인력양성 수요에도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자격 취득 방식 다양화

자격 취득 시 선학습을 인정해, 자격간 연계를 강화해 자격 취득 효율성도 제고한다. 출산·육아, 휴학 등으로 훈련이 중단되더라도 나머지 과정을 이수하면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부분 이수도 인정받을 수 있게 됐다. 조정산업기사 및 조정기사 종목에 시범도입한 후, 과정평가형 전 종목에 단계적으로 확대된다. 우수 교육·훈련 실적도 자격으로 인정해 자격 취득만을 위한 학습을 최소화하고, 평가 내용도

직무수행능력 중심으로 개편된다. 그밖에도 기존 취득 자격에 대해 능력 단위별로 인정해, 인정받은 능력 단위에 대해선 일정 기간 다른 종목의 검정·평가를 면제하는 자격간 연계도 강화된다. 현장에서 활용되는 직무 범위에 비해 넓게 설정된 자격을 직무 단위로 세분화한 '모듈형 자격' 제도도 시행된다. 모듈형 자격 취득 이력은 직무능력은행에 저축·관리하며, 모듈자격을 모두 취득하는 경우 완전자격으로 인정해 자격증 발급이 가능해진다.

모듈형 자격 운영 예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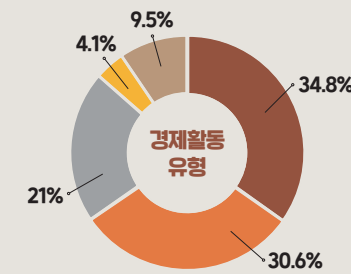


국가기술자격 응시자·취득자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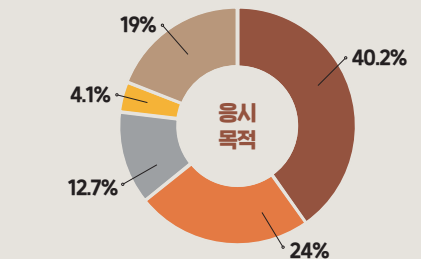
※ 2022년 필기 응시자 160만 명 응답

경제활동유형

학생·구직자 등 구직(예정)자의 비중이 높으나, 2017년에 비해 재직자 비중이 증가(2017년 27.8 → 2022년 37.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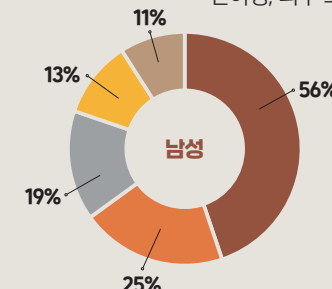
■ 재직자 ■ 학생 ■ 구직자 ■ 주부 ■ 기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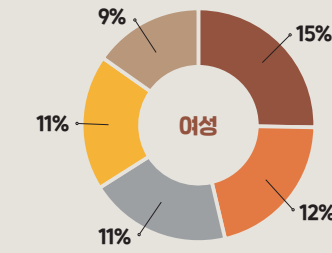
■ 취업 ■ 자기개발 ■ 업무능력향상 ■ 창업 ■ 기타

선호 종목

면허성, 의무 고용형, 창업 가능한 종목의 자격 선호



■ 자격차운전기능사 ■ 굴착기운전기능사 ■ 전기기능사 ■ 산업안전기사 ■ 전기기사



■ 한식조리기능사 ■ 제빵기능사 ■ 제과기능사 ■ 미용사(피부) ■ 미용사(일반)

국가기술자격 검정 수탁기관 현황

검정수탁기관	수탁 자격 종목(548종목)
한국산업인력공단	기술·기능분야 482종목 및 서비스 분야 15종목(총 497종목)
대한상공회의소	전자상거래관리사 1·2급, 비서 1·2·3급 등(회계·사무분야 총 15종목)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원자력발전기술사, 방사선관리기술사, 원자력기사(총 3종목)
영화진흥위원회	영상산업기사·기능사(총 2종목)
한국콘텐츠진흥원	게임기획전문가, 게임그래픽전문가, 게임프로그래밍전문가(총 3종목)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전파전자통신기사·산업기사, 무선설비기사·산업기사 등(방송·통신분야 총 18종목)
한국광해광업공단	자원관리기술사, 광해방지기술사·기사 등(광업분야 총 7종목)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	빅데이터분석기사(총 1종목)
한국디자인진흥원	서비스·경험디자인기사(총 1종목)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타워크레인설치·해체기능사(총 1종목)

MOEL News

01

임금체불 근절을 위한 새해 첫 민생행보



고용노동부 이정식 장관은 1월 4일 고용노동부 성남지청과 근로복지공단 성남지사를 찾아 실무자들을 격려하고 현장에서 만난 임금체불 근로자를 위로했습니다. 성남지청에서 열린 '임금체불 근절 및 피해 지원을 위한 현장간담회'에서는 임금체불 사업주 엄정 대응, 체불근로자의 피해 지원방안 개선 등이 논의됐습니다. 먼저 임금체불 구속수사는 2021년 대비 3.3배 증가했습니다. 지난해 임금체불이 크게 증가하는 상황에서 악의·상습적 임금체불 사업주에 대한 강제수사(명단 공개 125명, 신용제재 222명)를 강화한 결과입니다. 또 체불근로자 생계 지원 강화를 위해 체불생계비 용자 상환 기간을 연장, 2024년 1월 중 관련 고시를 개정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상환기한이 도래한 5,700여 명의 근로자가 즉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고용노동부 이정식 장관은 1월 4일 고용노동부 성남지청과 근로복지공단 성남지사를 찾아 실무자들을 격려하고 현장에서 만난 임금체불 근로자를 위로했습니다. 성남지청에서 열린 '임금체불 근절 및 피해 지원을 위한 현장간담회'에서는 임금체불 사

02

국가기술자격 제도발전 기본계획



앞으로 국가기술자격 취득자가 습득한 신기술 직무역량을 국가기술자격증에 반영하는 플러스자격이 도입됩니다. 시험방식도 컴퓨터 기반 시험(CBT: Computer-based Test) 방식으로 개편됩니다. 정부는 지난 1월 16일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반영한 <제5차 국가기술자격 제도발전 기본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기본계획에는 플러스자격 도입, 컴퓨터 기반 시험 방식으로의 개편 외에도 다양한 자격 제도 개선 방안을 담을 예정입니다. 직무 범위가 넓은 자격은 현장의 채용·경력관리에 활용되는 직무 단위로 세분화합니다. 청년 응시자에게 자격시험 응시료를 50% 지원, 비용 부담을 줄입니다. 중장년이 선호하는 분야는 체계적인 실무 훈련이 가능한 과정평가형 자격 중목을 확대 신설해 전직을 집중 지원할 계획입니다. 외국인 자격시험 응시자에게 다국어 시험 서비스를 제공, 기업이 기술 숙련도가 높은 외국인 근로자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앞으로 국가기술자격 취득자가 습득한 신기술 직무역량을 국가기술자격증에 반영하는 플러스자격이 도입됩니다. 시험방식도 컴퓨터 기반 시험(CBT: Computer-based Test) 방식으로 개편됩니다. 정부는 지난 1월 16일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03

설 명절 대비 체불예방, 조기청산 대책 마련·시행

설 명절 대비
<체불예방 및 조기청산 대책>

취약업종 체불예방·청산 집중지도 건설업, 취약사업장 모니터링 강화 및 사전 지도 실시	3대 대응원칙 견지 신속: 체불 신속청산체계 가동 적극: 직권조사 적극활용 엄정: 악의적 임금체불 엄정대응
피해근로자 지원 강화 · 대지급금 처리기간 한시 14일→7일 · 체불근로자 생계비 용자 (연 1.0%, 신용회복연 1% 별도) · 체불청산지원 사업주 용자 (연 1.0%, 신용회복연 0.7%)	비상대응체계 운영 · 집중 지도기간 운영 · 근무감독관 비상근무 3주 실시 · 체불청산 기동반 가동

고용노동부는 모든 근로자가 임금체불 걱정 없이 설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체불예방과 청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지난 1월 15일부터 4주간 '체불예방·청산 집중지도기간'을 운영하는 등 대책을 시행했습니다. 이번 대책은 부동산 경기 부진, 원자재 가격 상승 등 타격이 큰 건설업을 중심으로 선제적 체불예방 활동을 전개, 국토교통부·금융위 등과도 협의체를 구성해 관계 부처간 협력을 강화했습니다. 상습·고의적 체불사업주에 대한 대응 강화에도 나섰습니다. 신고가 어려운 재직자를 대상으로 선제적인 기획감독을 실시했습니다. 사업주의 재산관계 수사 강화, 소액일지라도 고의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의 강제수사를 강화해 나갔습니다. 임금체불로 고통 받는 피해자 구제책도 보다 강화했습니다. 간이대지급금을 신속하게 받을 수 있도록 처리 기간을 한시적으로 단축하고, 체불청산 지원 사업주 용자 금리도 인하했습니다.

04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현장의 절실한 호소를 듣다



현장 중소기업계를 중심으로 50인 미만 기업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준비 부족 등을 이유로 추가 적용유예 요구가 높습니다. 이런 가운데 고용노동부 이정식 장관과 중소벤처기업부 오영주 장관이 함께 현장을 찾았습니다. 임시국회가 시작되는 1월 15일에 양 부처 장관은 120여 개 표현처리업종이 입주해 있는 아파트형 공장인 인천 서구 소재 '지식산업센터'에서 '민생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1월 27일 중대재해처벌법 전면 시행이 열흘 앞으로 다가온 만큼 현장 중소기업의 열악한 준비 여건과 현실적인 어려움 등에 대한 생생한 이야기가 오갔습니다. 이날 간담회에서 이정식 장관은 "중대재해 예방이라는 법의 취지를 달성하면서도 중소기업과 근로자에게 피해가 없도록 국회에서 적극 논의·처리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고 말했습니다.

현장 중소기업계를 중심으로 50인 미만 기업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준비 부족 등을 이유로 추가 적용유예 요구가 높습니다. 이런 가운데 고용노동부 이정식 장관과 중소벤처기업부 오영주 장관이 함께 현장을 찾았습니다. 임시국회가 시작되는 1월 15일에 양 부처 장관

이제 더 이상 반려동물은 집을 지키는 존재가 아니다. 개와 고양이 등 반려동물은 하나의 가족이다. 사랑하는 반려동물이 세상을 떠난 뒤 경험하는 상실감과 우울증인 '펫로스 증후군'을 겪는 사람도 적지 않다. 글 정자는 참고 통계청·지식재산평가센터 외 다수

집사를 자처하는 반려시대



반려문화의 성장, 그리고 전성시대

반려동물 인구 1,500만 시대. KB금융지주의 <2021년 반려동물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반려동물 양육 인구는 전체 인구의 약 30%인 1,448만 명이다. 한국인 4명 중 1명이 반려동물과 함께 산다고 볼 수 있다. 이들 중 88.9%는 반려동물을 가족의 일원이자 하나의 인격체로 받아들인다.

마당에서 집 지키던 개, 사람이 먹다 남은 음식을 줬던 시절도 있었다. 이제 반려동물이라는 표현을 쓰고 소유물이 아닌, 하나의 가족 구성원으로 생각하는 사회적 분위기로 변화하고 있다. 반려동물의 건강을 위해, 전용 사료와 간식을 따로 구매하는 것은 당연한 흐름이 됐다. 수십만 원씩 드는 각종 병원비와 케어 비용도 기꺼이 지불한다. 유통업계에서는 '펫코노미'라는 표현을 쓸 만큼, 반려동물 관련 경제는 매년 급격히 성장하고 있다.

동물을 넘어 식물로, 식집사의 등장

동물은 쾌적한 주거 환경과 실시간 케어가 필요하다. 동물을 키울 상황이 안 되는 사람들은 홈가드닝에 관심을 돌리기도 한다. 소위 '식집사'라 칭하며 반려식물을 키우는 경우도 있다. 한국발명진흥회 지식재산평가센터는 2019년 100억 원 규모에 불과했던 홈가드닝 경제가 2020년에 600억 원으로 증가, 2023년에는 5,000억 원으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했다.

식물을 키우는 행위도 반려동물처럼, 함께 사는 가족으로 여기며 애정을 쏟는 것이 하나의 트렌드가 되고 있다. 식물을 기르는 일은 미세먼지 제거나 우울감 해소 등과 같은 건강과 정서 케어에 도움이 된다. 과거와 달라진 점은 식물을 키우는 사람의 마음이다. 동물도 가족이라고 생각하면 정말 가족이 되듯이, 식물이라고 다르지 않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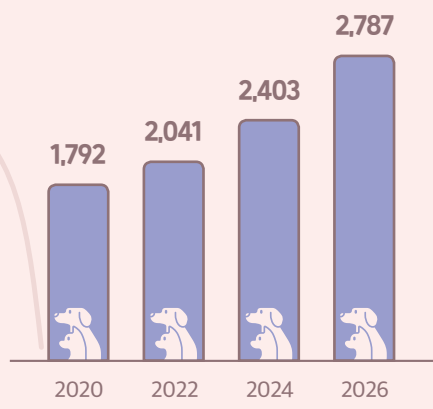
반려문화의 시작, 외로움이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우리나라 전체 가구 중 1인 가구 비율이 2000년에 약 15퍼센트, 2010년에는 약 24퍼센트, 2020년에는 30퍼센트 이상으로 증가했다. 2030년에는 절반 이상을 차지하게 될 것이라고 한다. 누군가와 함께 사는 것이 당연했던 시대는 혼자 사는 시대로 변화했다. 혼자 사는 즐거움과 함께 외로움도 새로운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2018년 한국리서치의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4분의 1가량이 상시적인 외로움을 호소했다. 최근 여론조사기관 피एम아이(PMI)의 조사에서도 외로움을 느끼는 국민의 비율이 10명 중 4명에 이르렀다. 외로움의 이유가 1인 가구어서는 아닐 것이다. 전문가에 따르면 1인 가구의 증가, 각자도생 문화, 이웃공동체의 해체 등의 사회적 현상이 외로움을 심화시킬 수 있다고 말한다. IT업계에서는 인공지능이 우리 미래의 '반려'가 될 거라는 전망이 유력하다. 이미 일본의 경우, 인공지능과 연애하거나 결혼하는 사람이 존재한다. 앞으로 인공지능 기술은 노년층에게 매일 연락해 안부를 묻고, 일상생활을 관리하는 등의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인공지능 기술의 개발로 어느 정도의 외로움이나 케어가 해소될 수 있겠지만, 실제 사람 간의 공감과 유대감을 대신 해줄 수는 없을 것이다.

국내 펫케어 시장 규모 전망

단위: 백만달러



패션·디자인

적성 따라 알아보는 나를 위한 직업 찾기



돈을 벌기 위해 일하는 것은 맞지만, 자신이 하는 일을 즐기면서 한다면 얼마나 행복할까. 이왕 하는 일, 적성에 맞는 직업은 무엇인지 탐색해보자. <잡, MBTI> 코너에서는 매호 직업별로 어울리는 성향을 MBTI를 통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는다.

글 신동현 참고 「MBTI 진로탐색」 외 다수

ISFP의 특징

#화합추구 #예술가기질 #세심함

“나는 따뜻하고 미적 감각이 뛰어나요. 감각에 예민하고 독립적이며, 내만의 속도와 방식으로 행동하는 것을 선호해요.”

ISFP는 관심 있는 일에 깊이 몰입하고, 자신의 호기심이나 예술적 성향을 표현할 수 있는 일을 잘 하는 경향이 강하다. 충충하게 계획을 세우거나 경쟁해야 하는 일에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다. 독립적으로 일하는 것을 좋아하면서, 사람과 관련된 일에 보람을 느끼기도 한다. 성격 특성과 어울릴 수 있는 직업으로는 스타일리스트, 패션 디자이너, 시각디자이너 등이 있다.

I 나의 에너지 방향은?

- | | |
|---|---|
| 외향형 E | 내향형 I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글보다는 말로 표현하길 원해요. 사회적이며 다른 사람들과의 상호 작용을 통해 에너지를 얻어요.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말보다는 글로 표현하기를 원해요. 깊이 생각하고 혼자만의 생각을 통해 에너지를 얻어요. |

S 나의 인식 기능은?

- | | |
|--|---|
| 감각형 S ✓ | 직관형 N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실제의 경험, 현재에 초점을 맞춰 생각해요. 실용적이고 현실적이며 직접 관찰한 정보를 신뢰해요.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영감, 아이디어, 의미에 초점을 맞춰 생각해요. 추상적이고 미래지향적이며 직감을 신뢰해요. |

F 나의 의사 결정은?

- | | |
|--|---|
| 사고형 T | 감정형 F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논리적이고 객관적인 분석을 바탕으로 의사를 결정하길 원해요. 일관성, 공정성, 진실성을 중요하게 생각해요.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치관, 공감, 타인의 감정에 대한 배려를 바탕으로 결정을 내려요. 조화, 공감, 인간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해요. |

P 나의 의사 결정은?

- | | |
|---|---|
| 판단형 J | 인식형 P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계획해서 결정을 내리고, 일정을 따르는 것을 좋아해요. 명확성, 예측 가능성, 안정성을 중시해요.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새로운 정보에 적응하고 선택권을 열어두는 것을 선호해요. 유연성, 자발성, 개방성을 중시해요. |

ISFP에게 추천하는 이런 분야

디자이너 분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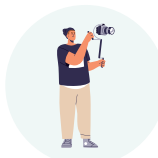
아름다움에 대한 예리한 안목과 감성력은 시각/그래픽 디자인에 도움이 돼요.

음악 분야



음악에 강한 매력을 느껴 음악가, 음악치료사 등으로 일할 때 성취감을 느껴요.

사진 분야



창의적이고 세밀한 부분에 대해 관심이 많고 사진을 통해 피사체가 가진 아름다움을 표현해요.

나에게 맞는 직업일까?



메이크업 아티스트

- | | | | |
|--------------|---|-------------|------------------------------------|
| 자기계발 | 새로운 트렌드를 관찰하고 적용하고 싶다. | 의사소통 | 포토그래퍼, 촬영감독, 고객과 상의하며 일을 진행할 수 있다. |
| 미적 감각 | 미술·색채·헤어·의상에 관심이 많다. | 신속성 | 피부·얼굴·분위기를 빠르게 파악할 수 있다. |
| 하는 일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분위기와 상황에 맞춰 고객의 메이크업을 담당하고 싶다. 헤어와 의상의 조화를 확인하고 화장법에 대해 조언하고 싶다. | | |
| 취업 분야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웨딩전문숍, 미용실, 방송국, 공연업체에서 일하고 싶다. 특수분장사, 이미지컨설턴트에 관심이 있다. | | |

챗 GPT가 살펴본 직업 전망

외모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며 메이크업 아티스트에 대한 수요도 높아지고 있다. 결혼식, 이벤트, 프로덕션 등 다양한 분야에서 메이크업 아티스트가 필요하다. 최근 SNS의 발전으로 자신의 작업물을 쉽게 공유하고 홍보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자신만의 브랜드를 만들고 클라이언트들과 연결할 수 있다.

예술 분야에서도 교육을 통한 전문성 강화가 중요해지는 분위기다. 전문 아카데미나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기술과 예술적인 면에서의 역량을 향상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기술과 제품에 대한 지속적인 혁신도 이뤄지고 있다. 새로운 제품과 기술을 습득해 트렌드를 따라가는 것이 경쟁력을 유지하는 데 중요할 것이다.



패션 디자이너

- | | | | |
|--------------|--|------------|---------------------------|
| 자기계발 | 다양한 스타일을 관찰해 패션에 적용하고 싶다. | 손동작 | 다양한 소재를 알고 재봉 기술을 갖추고 싶다. |
| 인내심 | 실수가 없도록 수많은 과정을 점검할 수 있다. | 분석력 | 예술·인문학을 공부하고 유행을 예측하고 싶다. |
| 하는 일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내외 패션 트렌드를 파악하고 새로운 패션 디자인을 기획하고 싶다. 성별, 연령에 맞는 의상을 디자인하고 싶다. | | |
| 취업 분야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의류·섬유회사, 개인의상실, 특수의상제작소 등에서 일하고 싶다. 의류브랜드 MD, 스타일리스트, 의류소평몰 창업에 관심이 있다. | | |

관련 자격증을 준비 중이라면? - 패션디자인산업기사 디자인 주도 상품은 우리나라 수출 상품의 약 37%를 점유하고 있다. 소비자/해외바이어의 상품 구매

여부 결정요인에는 품질과 디자인의 비중이 가장 높다. 이런 관점에서 패션디자인산업기사 자격취득자의 인력수요는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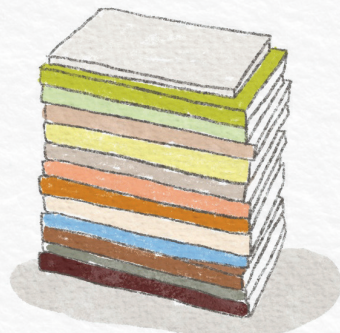
※ 과정평가형자격 살펴보기 한국산업인력공단 씨큐넷(cq-net.or.kr)

글·그림 여혜리 작가

기회



1



저는 차곡차곡이라는 말을 좋아합니다.

2



내가 잘하고 좋아하는 걸 꾸준히 하다 보면

3



눈에 보지 않아도
나의 내면에 차곡차곡 쌓여간다고 생각해요.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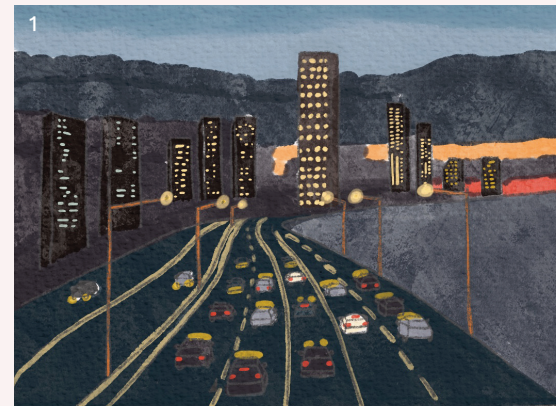
차곡차곡 쌓아온 꾸준함과 기회가 만나면
반가운 손님이 되는 거고요.

5



그러다 보면 기회를 타고 훨훨 날아오르는 날도
곧 오겠지요?

사소한 즐거움



매일 똑같은 일상에 가끔 지칠 때가 있죠?

2



그럴 땐 내가 좋아하는 걸 일상의 빈틈 속에 넣어보세요.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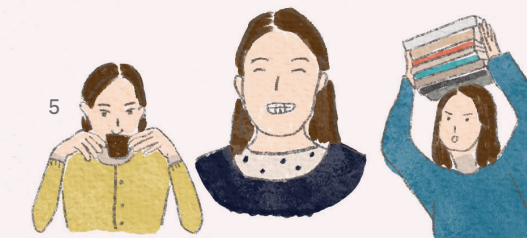
따뜻한 커피 한잔과 갓 나온 빵

4



점심시간에 간단한 산책을 하거나
퇴근 후 좋아하는 운동을 하는 것도 좋아요.

5



일상의 사소한 순간을 즐기면
하루의 긴장도 풀어지고
다시 지금에 집중할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어요.

「월간내일」과 함께하는 초성퀴즈

「월간내일」 2024년 2월호를 읽고 퀴즈에 응모해 보세요!
정답자 중 추첨을 통해 커피 쿠폰을 보내드립니다. 독자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QUIZ

고용노동부는 2024년 1월 1일부터 건설근로자의 현장 출·퇴근을 실시간 기록·관리하고, 사업주는 기록된 내역을 기반으로 근로일수 신고 및 공제부금 납부를 의무화했습니다. 이 제도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Hint!

가사거리지즈카드즈

요즘 이것은 스마트폰이나 가방에 달려 있다.
MZ세대에게 레트로 문화처럼 기존에 접하지 못한 트렌드로
인식되고 있는 이것은?

Hint!

카리

참여방법 | 이벤트는 QR코드를 통해 응모하실 수 있습니다.



Step 1 스마트폰으로 QR코드 스캔

Step 2 이벤트 응모 입력 후 제출

참여기간 2024년 2월 16일(금)까지 ※ 당첨자에게 별도로 연락드립니다.



「월간내일」 독자 라운지

이번 「월간내일」 잘 읽어 보셨나요? 이번호를 읽으며 가장 좋았던
내용은 무엇이며, 가장 도움이 되었던 내용은 무엇인가요?
더욱 알찬 「월간내일」로 여러분을 찾아갈 수 있도록,
독자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추첨을 통해 커피 쿠폰을 보내드립니다.

- 1 이번 「월간내일」에 대한 만족도는 어떤가요?
- 2 이번 「월간내일」에서 가장 좋았던 내용과 이유는 무엇인가요?
- 3 앞으로 「월간내일」에서 다루었으면 하는 주제나 보완되었으면 하는 점은 무엇인가요?

참여방법 | 이벤트는 QR코드를 통해 응모하실 수 있습니다.



Step 1 스마트폰으로 QR코드 스캔

Step 2 이벤트 응모 입력 후 제출

참여기간 2024년 2월 16일(금)까지
※ 당첨자에게 별도로 연락드립니다.



「월간내일」 구독 및 구독 해지 방법

- 1 「월간내일」 웹진에 접속합니다.
- 2 [QUICK MENU]를 클릭하고, '구독신청 및 해지'를 클릭합니다.
또는 홈페이지 제일 아래의 '구독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 3 구독하시려면 '신청하기' 버튼을, 구독을 해지하시려면 '해지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 구독 및 해지를 위해 정보입력 및 개인정보 수집에 동의하여야 합니다.

